

17 교회 안의 질서

Chapter

벧전 5:1~6, 롬 16:1~16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 87장 (형제의 모습 속에)

오늘 배울



말씀

1.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압니다.
2. 인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 열기

주일 아침 교회에서 만난 분들입니다. 평소 어떻게 대하고 인사하는지 그림 옆에 써 봅시다.



평소 무서워하는
봉사회 형제님



다른 분반 선생님



초등부 동생 형제



점심 배식을 해주시는
어머니 자매님



잘 모르는 할머니





말씀을 이해하기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순종할 때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관찰해 보면 이 우주가 정확한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법칙과 질서를 어기며 방황하는 별들을 위하여 감감한 흑암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이를 어겼을 때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들이 있고, 각각의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도 질서가 존재하고 각 사람이 자기 위치에 순복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다할 때 평화가 유지 됨을 알려주십니다. 학교, 사회, 국가 안에도 질서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질서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도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질서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또한 질서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의범절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적절한 예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함을 나타내는 간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벧전 5:5)

Likewise you younger people, submit yourselves to your elders. Yes, all of you be submissive to one another, and be clothed with humility, for "God resist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1 Pt 5:5)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고전 11:2~12)

(민 16:1~3, 28~35)

(시 131:1~3)

2. 사사기 9장 8~15절을 읽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가시나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 봅시다.

1)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2) 가시나무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중고등학생의 위치는 교회에서 어떤 위치입니까? 그 위치에 만족하고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중요한 일이 될까요?

2.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과 함께 문안(인사)하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질서를 아는 것과 인사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일까요?

3. 평소에 나의 인사하는 태도와 올바른 인사법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그리고 올바른 인사법대로 교회 안에서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교회로 모일 때에 성도의 유익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조심하며 예의를 갖출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이야기

날 구원하신 그 날



♫ AD

나의 B.C



말씀을 깨닫고 구원 받은 그날
그날도 저는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어깨를 언제나
꼭 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 사라져 버림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흥분하고 가벼운 어깨가 단지 어리둥절하고 얼떨떨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듯 끝없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상식과 질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지대에 몬테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비극적인 장소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2차대전 당시 국경을 지키던 1200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크리스마스 특별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올라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군인들은 기쁨에 들떠 “빨리 출발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기관사는 “얼마 못가서 급경사와 급커브가 있는데 승객을 이렇게 많이 태운 채 운행했다가는 대형사고가 날 겁니다”라며 기차를 출발시키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을 인솔하던 장교 중 하나가 기관사에게 다가와 총을 빼들고 “당장 이 기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장교는 기관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한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관사는 할 수 없이 기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가 기관사가 이야기했던 급경사가 나타났습니다. 속도를 줄여야 했지만 너무나 많은 승객이 탄 바람에 기차는 도리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기차는 급커브를 돌지 못하여 탈선하고 말았으며 이 사고로 인해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목숨을 지켰던 군인들이 상식과 질서를 무시한 한 장교의 고집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질서를 벗어나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급커브를 만나게 되면 제대로 돌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